

## 사람이 두려울 때에

신학박사 조 덕운

[창세기 32:9-12]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12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손자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그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밤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 그 실현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12 절].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시리아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20 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동안 그를 도우시고 그의 성장을 위해 지혜를 제공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이 라반의 족쇄를 과감히 차버리고 그간 이룩한 큰 떼를 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행하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야곱에게는 두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자기를 쫓아올 외삼촌 라반이었고, 둘째는 분명히 마주쳐야 할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존재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라반과는 충돌 없이 결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에서에게 했던 속임수로 인하여 에서가 그에게 갖게 된 극도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지난 20 년 동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과오나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치러야 할 댓가가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알고 야곱처럼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도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식처럼,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과거의 과오와 다가올 통과 의식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축복이 오기 전에 치러야 하는 원수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적개심을 해소할 방도로서 자신이 가진 육축 중에서 염소 220 마리, 양 220 마리, 낙타 30 마리와 새끼들, 소 50 마리, 나귀 30 마리, 도합 최소한 550 마리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로서 앞서서 가게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형 에서가 만일에 무력을 행사하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우선 순위를 두어 거리를 두고 행보하게 함으로써 맨 후방에서 자신이 그와 싸울 준비를 갖추 시간적 여유를 갖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400 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무력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자신의 어떤 현명한 전술과 방법 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함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복강 강변에서 밤을 지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축복의 언약을 받기까지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압복강의 야반 씨름을 통하여 야곱에게 세가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된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두번째의 변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창 32:29]. 우리는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달려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과 기쁨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어 디디게 됩니다. 세번째 변화는 그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 근육을 치심으로 그가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큰 때를 이룬 야곱의 행보가 성취감에 찬 의기 양양한 걸음에서 이제는 절둑거리의 겸손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 저 멀리 400 명의 무장 병력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다가오는 에서의 세력은 550 마리의 자신을 위한 야곱의 선물에 압도되고, 네명의 아내들과 11 명의 아이들과 수 많은 하인들과 육축들을 보고 야곱의 재력에 어느 정도 위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선물과 재력의 위세보다도 절둑거리면서 자기에게 오면서 일곱번이나 땅에 머리를 대면서 절을 하는 쌍둥이 동생 야곱의 겸허한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증오심과 적개감을 충분히 녹였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두 형제는 이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원수된 형제와 화평을 이루어야만 함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23-25]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24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형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물로 내어 놓고, 자신을 낮추어 겸허한 절름바리의 자세로서 형제 앞에 머리를 숙인 야곱의 지혜와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점에서 실패함으로써 믿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적개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밤을 세우는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변화함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 변화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원수와 화평을 이루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야곱을 본 받아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으로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